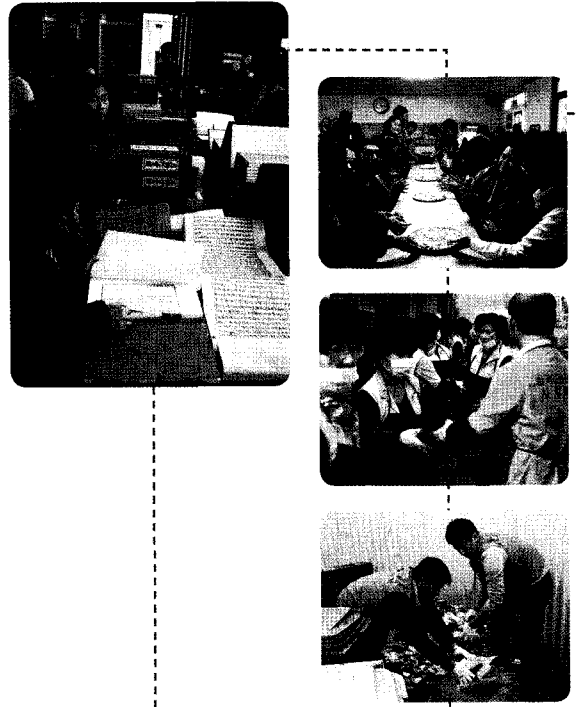


‘사랑의 끈’ 전국 릴레이 봉사 전국 곳곳 따뜻한 나눔을 이어라

추위와 함께 성큼 다가온 겨울, 전국을 따뜻하게 녹여줄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그 따뜻한 소식의 근원지는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올 4월에 이어 47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아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서울에서 제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사랑의 끈’ 전국 릴레이 봉사를 펼쳤다.



행복바이러스 서울에서 제주까지

행복바이러스는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0월 21일, 직원 및 건협 어머니 사랑 봉사단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열린지역아동센터와 위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파주 출판도시를 방문, ‘책나라 문화여행’을 하였다. 아이들과 함께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직접 체험도 하였으며,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직접 고른 책도 선물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행복 바이러스는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울산, 춘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창원, 제주로 이어져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겨울을 앞두고 연탄 배달과 쌀 나누기 등 월동을 위한 봉사가 많았다.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는 기름값, 전기료 때문인지 요즘은 연탄을 태우는 집들이 많다고 한다. 이는 어려운 이웃들도 마찬가지. 특히 이들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연탄 한 장을 아끼기 위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두꺼운 이불과 옷을 겹쳐 입는 것으로 버틴다. 그들은 연탄 창고에 연탄이 한 장 한 장 쌓이는 것을 보며 부자가 된 듯 마음이 든든해져 오히려 추위도 덜 느껴질 것 같다고 한다. ‘부자’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이 단어가 오늘은 나누는 이에게는 ‘행복바이러스 나눔의 부자로, 받는 이에게는 ‘행복바이러스 저축의 부자로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MEDICHECK**

함께해요
‘건협 어머니 사랑 봉사단’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매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사랑 나눔을 함께할 ‘건협 어머니 사랑 봉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만 60세 미만 여성으로 나눔의 행복을 같이 느낄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환영이다. 전국 16개 지부 중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사업관리과로 문의 가입하면 된다.

